

2022학년도 3월 고3 국어 간략 해설

안녕하세요 워런입니다.

해설에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쪽지 남겨주세요
ㅎㅎ

2. ③

[A]와 관련하여 <보기>를 이해하라는 건 [A]의 내용 + <보기> 내용 으로 선지를 판단하라는 거겠죠.

[A]의 내용은 자신의 상태를 고려해 자신만의 독서 전략을 운용하라는 것인데 ③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네요.

7. ⑤

'이 경우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.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지원금' → 정률지원금 = 공공재 가격 보조금입니다.

정액 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평행 이동해 선분 JK가 되지만

정률 지원금은 공공재 소비에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용재 소비양에 비해서 선분 AB보다 선분 AQ가 더 많은 공공재 소비양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

④ :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공공재 소비양이 많아집니다. 공공재 소비양이 많아진다는 건 공공재 소비 부담은 감소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.

⑤ : 선지가 비교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. ③,④는 지금 이전과 비교하라는 기준을 줬는데 말이죠. 일단 E_b 와 E_m 을 비교해봅시다.

공공재 소비량 : $E_b < E_m$

사용재 소비량 : $E_b > E_m$

소득이 많을수록 소비량이 많아지므로, 만약 E_b

와 E_m 의 사용재 소비량이 같았으면 둘의 소득 금액 차이는 Z_b 와 Z_m 만큼의 차이이지만, 사용재 소비량이 다르므로 둘의 소득 금액 차이는 Z_b 와 Z_m 만큼의 차이가 아닙니다.

8. ①

'그런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.' → ① 내용이 그대로 써있네요.

11. ③

② : 해시함수는 '입력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 모두 다른 해시값'을 생성합니다. 다만, 해시값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문에 설명이 없습니다.

대상 문자열에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면 해시값이 작아지는지 커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.

그리고 해시값이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 해시함수의 연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 또한 지문에 없습니다. 그래서 해시값이 작아지면 연산 시간이 단축되는지 늘어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.

③ : 맞는 말입니다.

④ : 검색어 길이가 짧아지면 비교 대상 길이가 줄어들어 건 맞지만, 비교 대상 길이가 짧아지면 비교 대상은 더 많아지겠죠. 따라서 해시값 비교 횟수는 증가합니다.

⑤ : 검색어 길이가 길어지면 비교 대상 개수는 줄어듭니다.

④, ⑤는 서로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선지네요.

12. ①

① :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비교 대상은 2개입니다. '글: 우'는 첫번째 조건에 의해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죠.

② : '우리 글'로 검색할 때 비교 횟수는 2회 '우리글'로 검색할 때 비교 횟수는 6회입니다. ('우리나', '리나라', '나라에', '라에서', '창제된', '우리글')

③ : 3글자로 된 비교 대상들이 만들어 지는게 맞습니다. 다만 첫째 조건에 의해 '한글:' 과 같이 문장 부호가 있는 3글자는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네요.

17. ③

3문단의 글의 순서를 살펴봅시다.

'행위자가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,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' = ② 내용입니다.

↓

'이와 관련해 결과를 발생시킨 ~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.' = 이 주장은 '의욕의 무한 후퇴 문제' 이죠.

↓

'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리드는, ~ '의욕을 일으킴'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.' = ③ 내용입니다.

따라서 ②로 인해 '의욕의 무한 후퇴 문제'가 제기 되었고, 리드는 ③을 통해 문제를 해소했네요.

21. ①

① : 속향이 '청조'를 만나는 시공간을 3월 보름 초당이고, 이선이 '부처'를 만나는 공간은 3월 보름 대성사입니다.

공간이 다르네요. 틀린 선지입니다.

30. ③

④ : '이것들보다 더 크고,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' → '더 크고, 높은 것'은 화자를 굴러 가는 존재입니다. 따라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 아니죠. (운명론적 관점이므로, 하늘, 신, 운명 등으로 볼 수 있어요)

34. ④

④ : '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' 없는 것을 '이만집의 어머니는 일찍 타계하신 것 같다'고 판단하고 있네요.

⑥가 늘 피해의식에 시달린다고 판단한 사람은 이만집의 아버지입니다.

화법과 작문

45. ④

④ : 3문단에는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.

언어와 매체

36. ①

보어 뒤에는 '되다', '아니다' 가 옵니다.

① : 진달래꽃이 피었다. → 피었다 는 자릿수가 한 자리입니다.

(화단도 아닌) 이라는 관형사절은 '무엇무엇은 화단도 아니다' 라는 구조이므로 화단도 는 보어입니다.

37. ④

④ : ㉠에서는 둘 다 용언으로 분류됩니다.
㉡에서는 '밝은'은 형용사, '잡았어'는 동사로 분류됩니다.

38. ④

④ : '많이 읽'을 보면 '읽'을 '많이'가 수식하고 있습니다. '많이'는 부사이므로 부사의 수식을 받는 '읽'은 동사입니다.